

[1] 민 요

저기 가는 저 할머니
딸이나 있거든
날 사위 삼우
딸이야 있지마는
사위 작아 못 삼겠네
참새는 작아도
새끼를 까구
제비는 작아도
강남우 간다우

대천바다 한가운데
뿌리없는 나무하나
자라서
가지는 열두가지요
앞은 삼백예순
그남에 열매가 열렸으니
일월인가

해는지고 저운날에
웃갓하고 에델가노?
자기집은 꽃밭이요
나의집은 연못이다.
꽃과 나비 한철이요
연못과 고기는 사시사철

뒷동산에 밤따는 처녀
밤한톨만 나를 주소
외톨박이 드리울까?
쌍돌박이 드리울까?
이밤저밤 다저쳐 놓고
동지선달 긴긴밤
하룻밤만 나를 주소

나물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요만하면 넉넉하지

나나 너어냐?
두리둥실 났는데,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짜 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운단다.

우리낭군 동해바다
명태잡이 갔는데
바람아 태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아랫집 아가씨
시집을 가는데
이웃집 총각은
목을 매려 간다네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될 사람 어디있나?
의사마다 병고치면
복망 산천 왜 생겼나?

명사 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설어마라
내년이면 춘 삼월에
다시 꽃이 핀단다.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풍풍나고요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난다

벽장에 걸린 시계야
또드락 또드락
가지를 마오
네가가면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간다면
님도 간다.

앞 동산에 쌓인 눈은
이 삼월이 다르지만
이 내가슴 쌓인 눈은

오뉴월이 되어도 안틀리네
나무하러 간다고
지게목발 뚜드리며 가더니
양지쪽에 앉아서
장가갈 공론만 하더라
(제비소리가)
베죄고 베죄고
건너집 김침이네
갔더니
콩 한쪽 안주더라
베죄고 베죄고

(풍 소가)
앞니 빠진 중광새,
윗니 빠진 갈가리
서울 길을 가지마라
숫말한테 채일라
암닭한테 채일라

[2] 수 요

꼬불꼬불 첫째고개
첫사랑에 못잊어서 올고가는 고개
꼬불꼬불 둘째고개
둘도없는 임을 만나
아리랑고개 넘던 고개
꼬불꼬불 세째고개
셋방사리 삼년만에 봇따리싸고 넘던 고개
꼬불꼬불 네째고개
네가네 간강이 설이설설 넘든고개

[3] 자연요

(설요)

눈이온다
펼펼
사탕눈은 오도록
오늘은 더와서
점점 쌓여라

높은 산과 얇은산이
흰 설모자 쓰고서
마른 눈은남매 앓어
꽃이 피었네

[4] 신앙성요

(염불요)

산에 올라 옥을 캐니
이름이 좋아 산옥이라
에-에미타야 염불이라

산에올라 도라질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삼이라
에-에미타냐 염불이라

앞집에 채붕아, 뒷집에 계월아
모두다 편안히 잘있거라
에-에미타야 염불이라

[5] 노동요

드문 등성 심어도
삼배출 짜리루 심어주게

(이양요)

어흠차, 짝어내야
오동추야 밝은달을
어흠차, 짝어내야
정노진경 가는 구름
온갖원소 자랑이요
어흠차, 짝어내야
황산벌은 청천이요
일호충구는 백로주자
어흠차, 짝어내야
만경대 구름속에
학이 날아서 춤을 추는데
어흠차, 짝어내야
노정사 심리헌데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영웅호걸이 몇이며
절대 가인이 누구누구?

뒷동산 살구꽃은

가지가지 봄빛이다
앞뭇에 장포윙은
총증에 움 뜯는다.

대감조종은 오념대감
농군의 조정은 이녀석인데
매일 장춘 술만먹고
한다는 소리가 노래로다

(뱃노래)

애와라, 놀아라
금붕어 둥둥둥
보름달싱고 애와라 임보러
한토막 싹둑 두토막 싹둑
임 얼굴 곱구나
보름달 닳았네
마음도 보름달
수안도 보름달
천년 만년 살고지고
또 만년 살고지고
또 만년 살고지고
애와라, 놀아라
금붕어, 둥둥둥

[6] 기 타

(닐리리)

왜 생겼나? 왜 생겼나?
요다지 곱게도 왜 생겼나?
닐릴 닐릴리어
닐릴리어 닐 릴리어
니나니 난실로 내가 들어간다.
닐릴 닐릴리어
왜 왔던가? 왜 왔던가?
울고서 갈길에 왜 왔던가?
닐닐 닐릴리어
닐릴리어 닐릴리어
니나니 난실로 못 들어간다.
닐릴 닐릴리어
앞뜰 살뜰 그리던 임을
언제나 만나서 싫도록 보나
닐릴리어 닐릴리아

니나니 난실로 내가 들어간다
닐릴 닐릴리어
양복쟁이 거동보게
양말 뒤꿈치 뺑고가 났네
닐릴리어 닐릴리어
니나니 난실로 내가 들어간다
닐릴 닐릴리어
천냥 만냥을 벌고지고
앞길 막걸리 먹고지고
뒷집 옥녀를 보고지고
닐릴리어 닐릴리어
니나니 난실로 내가 들어간다
닐릴 닐릴리어

[7] 잡 요

(대추드령사려)

대추드령사려 대추, 대추, 대추
충청도 단대추 꿀맛이구려
자-신부신랑 잔칫상에
이대추를 올랐으면 옥동자가 한쌍이요
금동자가 한쌍이요. 장가가면 돈잘벌고
백년해로 언제든지 만만하게 살것이니
있을적에 다들사소야. 대추, 대추, 장사려

(포도령 사려)

포도령사려, 포도령사려
포도, 포도, 영인산 백인장 꿀맛이구려
자, 아침저녁 잔칫상에 포도를 올랐으면,
만하 태평 하오시며 봄나비가 날아든다.
날아오면 연못이요. 밤이되면 웅기등기등기
이럴적에 다들사소, 자-포도, 포도, 포도장사려

구신현용 정마
북방에도 찬자리요
생각나느니 임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오리정 정불추로
일장서를 내가 못보았으니
부모봉양 글공부
겨름이 없소
일이신하 연인신혼
금을이지 나희를 잊고도

일이신하

계궁 항하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자 마장막내 막혔으니
앵무새를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측 잠못 이루리
혼자 몸은 글서있다.

손가락의 피를 내어
사정으로 편지할까?
간장에 썩어진 눈물로
임의 화상 그려볼까?

어화일치 춘백호를
내눈물을 뿌렸으니
야호 문전단장성 안의
빗소리만 들어도 임의생각

추호동 추호동 염날지어
낙엽만 떨어져도 임의생각이라
게통반체 철여고우
병따는 여인들도
나보담은 좋은 팔자
동문 밖을 못나가니
병을 따고 연겔소냐?

내가 만일 내임을 못보고
옥중고혼 될것이면
무덤 앞에 섰는 돌은
망부석이 될것이요

무덤 근처 섰는나
상사목이 될것이니
생전사호 이원흥한
한을 알려 주리까?
뉘있던 말이나
퍼버리고 서름이 온다.

남산밑에 장춘단 집고
군악대 장단에 밧뜨려 총한다.

담넘어 갈적에 우는새는
인왕산호랑이 꼭 물어가고
구만리 장천에 우는 닭은
야산 쪽잡이 꼭 물어간다

머루 다래야. 열지를 마라
우리 장동새 떼난봉난다.

아리랑 고개는 못음고개
염감표 한장에 막넘겼네

아리랑 타령이 얼마나 좋은지
저녁밥푸다가 오줌을 싰네
내가 하니까 오줌을 싰지
어머니같으면 물개똥 싰다.

약물내기 딸땃내 술한잔 주게
사방공사 땃돈벌이 술값 줄께

영감아, 땡감아, 떡받아먹게
봄보리 개떡에 꿀 발랐네

왜이리 날 즐라? 왜이리 날 즐라?
아무리 즐라도 막무가닐세

울어마니 친구는 내몰라요
내친구 왔으면 문열어주지

울타리밑에서 깔비는 총각
눈치나 있걸랑 똑바로보소

유수야, 세월아, 가지를마라
인간의 청춘이 다늙어간다

인제가면 언제오나?
오만한이나 알려주소
일년에 열두달 남의집살이
청처매 밑으로 다녹아든다

풍년이 온다고 풍년이 온다고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온다네

별구경가세. 달구경가세
정든임따라서 달구경가세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다
정든님 따라서 뽕따러가세
별도볼겸 달도볼겸
뫼산너머로 달구경가세

서리는 내리어 하늘은 높디높고
눈은 내리어 산기는 맑고맑다
올해도 저물어 경풍은일고
나를도와 감회를 복돋우네

형제가 혹은 등으로 서로
머나먼 이정을
견디지 못하겠네
동양로 머나먼길
언제나 바라보니
슬픔에 젖어서
좋아본적 아직없네
꿈에도 돌아가니
운로는 희미하고
넓디넓은 한강수는
쉬지않고 흘러간다

일어나 바라보니
장하는 맑은데
밤을 새워가며
곰곰이 생각하다
낙양머나먼곳
천문만호 드러선곳
흐르는 청운 속에
우뚝 솟았도다

일행의 기러기
남으로 날을째
우리를 떠나랴고
나는양 부러워라

어젯밤에도 나가지구
무삼염치로 삼삼보선에

불바다 탐내
줄구나, 에화로다

물길러 간다고 강차말고
물길러 간다고 시내 범배 구멍에
자주 들러 오라
줄구나, 에화로다

학성낙엽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용무낙하 음신단하니
북방소식 누가 전하랴
빌건데, 내글한자
임계신 곳으로 전코가오
얼시고 좋다, 저절씨고
지화자 좋다.

(아리랑 타령)
아리랑 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우리집 부모가
날 찾으시거든
광복군 갔다고
말전해주소

바다에 두둥실
떠오는 배는
광복군 신고서
오시는 배요

두실령 고개서
북소리 두둥 나더니
한양성 북판에서
태극기 날려요

(어랑타령)
어령타령 본적은
함경도 원산이지만

시사미가미 본적은
경성 신마찌로다

뒷동산의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고무공장 큰 아긴
밴도 박고만 싸노라
어랑어랑 어허라
어렴마디어라
이것도 몽땅내사랑

(어랑타령)

어랑타령 번조종원
함경도 원산이요
사시시기까미 번조종원
경성 육객이라
어랑어랑 어헤야
어험아 둥기디어라

꽃피는 삼월이라고나
네 얼굴이 곱다 하여도
이십 안팎이요
국화꽃이 곱다 하여도
춘수 단절이라
어랑어랑 어헤야
얼어럼마 둥게디어라

(방개타령)

에-무강, 무강, 만수무강
삼천만 동포가 만수무강
에-에-에헤이 헤야
얼널널거리고 방개흥개논다

에-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삼천리 강산에 풍년이왔네
에-에-에헤이에야
얼널널거리고 방개 흥개 논다

(방아타령)

경상도 영천읍
물방아가 있는지라

மிழ않은 마누라들이
도구방아를 짚어
이리야 어서 짚고
잠이나 자자꾸나
낭군없이 드는잠은
새우잠을 든다.
에헤로 찜쳐 짚어도
방아훅에로구나

술이라 하는것은
아니먹자 맹세하더니
안주보고 술을보니

맹세등등 허사로구나
잠이라고 하는것은
수일 개념 잠못자
팔진어 입에갈다넣으니
모두다 모래갈고
집을 달고 발을 파니
패가 망신 아닌가?
지래 바탕 큰 애기들은
망건 뜨기를 잘 한다더라
아이야. 그것 모두
거짓말이로다
아무데 딸이나 다 그럴것인가?
망건 고장이 그럴지

함경도 큰 애기들은
명태 잡이도 나간다더라
이야. 그것 모두 거짓말이로다
함경도 큰애기라 모두다 그럴까?
명태곳이 그럴지
길갓집 큰 애기들은
내다보기를 잘 한다더라
이야. 그것 모두 거짓말이로다
길갓집 큰애기라고, 다 그럴까?
홀아비 자식이 그럴지.